

“지금 아니면 소외”... 부동산 대신 코스피로 ‘개미 대이동’

6000선 넘보는 코스피

직장인 김모(28)씨는 지난달 30일 생애 첫 주식계좌를 만들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유가가 치솟고 금리가 뛰면서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주변에서 ‘저가 매수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기 때문이다. 3월 마지막 날 코스피가 5000선 초반까지 밀렸다는 뉴스를 접한 뒤, 김 씨는 계좌에 5000만원을 예탁했다. 김 씨는 “보수적인 성향이라 주식은 들어다볼 생각도 안 했는데 나만 소외되는 것 같아 과감하게 올인했다”며 “벌써 수익률이 두 자릿수까지 뛰었다. 추가로 더 매수할 생각이다”라고 했다.

주식거래활동계좌 수 사상 최고치 外人, 지난달 3일부터 30조 순매도 개인, 21조1783억 순매수로 공방 서학개미, 美 증시 순매도 10억弗

코스피 다시 ‘6천회’(코스피 지수 6000)를 바라보고 있다. 10일 코스피는 1.40% 상승한 5858.87을 기록 중이다. 코스피 상승 속도가 빨라진 것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이 크다. 개인들은 연초 이후 국내 주식을 25조원 가까이 사들였고,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에 약 57조원가량을 쏟아부으며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다. 국내 주식 거래 활동계좌는 2월 말 사상 처음으로 1억개(2월 20일 기준 약 1억1500만개)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5111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 1명당 2개씩 주식 계좌를 갖고 있는 셈이다.

예·적금으로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이 변변치 않은 데다, 종자돈이 필요한 부동산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 2030세대는 물론 은퇴 세대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 개미들이 이끄는 코스피, 2차 동학개미운동?

직장인 최모(33)씨는 “어차피 지금 월급으로 집을 사기도 힘들 것 같아서 투자에 ‘올인’해보기로 했다”며 “최근 코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5858.87로 마감한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피200 인덱스 펀드(지수에 연동해 수익을 내도록 운용하는 펀드)에 월급을 통째로 넣었다. 이렇게 수익이 날 줄은 기대하지 않았다”며 행복해했다.

실제로 코스피는 하락세인 반면 주식거래 활동계좌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기준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는 사상 최고치인 1억1500만3715개에 달한다. 주식계좌 수가 한국 인구보다 두 배가량 많은 셈이다. 코스피가 처음으로 4000을 넘어선 지난해 10월 27일 9502만5913개였던 주식 계좌는 4개월 안팎의 기간에 약 6.82%가 늘었다. 3000선을 처음 돌파했던 2021년 1월 7일(4055만4029개)과 비교하면 무려 150.29% 증가한 수치다. 주식거래 활동계좌란 예탁자산이 10만원 이상이며, 6개월간 1차례 이상 거래 내역이 있는 계좌를 뜻한다.

개미들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동학농민운동’을 방불케하는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외국인인 유가증권시장에서 30조원 넘게 팔았다. 연초 이후 누적 순매도 규모는 51조8376억원에 달한다. 전쟁 리스크와 유가 상승, 환율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되며 한국 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지속된 흐름이다. 반면 개인은 같은 기간 21조1783억원을 순매수했다. 올해 누적 순매수 규모도 24조8110억원에 달한다.

김준영 iM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

에서 “한국은 가계 자산에서 주식과 같은 금융 자산의 비율이 확대되는 ‘가계의 구조적 자산 재배분’ 과정에 있다”며 “개인 수급은 변수가 아닌 상수로 봐야 하며 그 영향력도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했다. 김 연구원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도 고액 자산가의 증시 유입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투자 규제 또한 증시 자금 유입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집을 떠났던 개미들도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달 들어 서학 개미들의 미 증시 순매도는 10억달러(약 1조4800억원)를 넘어섰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서학 개미들의 미 주식 매도 금액은 70억205만달러로, 매수 금액 60억136만달러를 크게 넘어섰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휴전으로 뉴욕 3대 증시가 2% 이상 급등한 지난 7일에도 서학 개미들은 3억달러(4440억원)어치 팔아치웠다. 일본 시장에서 이달 들어 지난 9일까지 약 1800억 달러 순매도를 기록하는 등 해외 주식 매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성년 주식투자자도 급증했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3사의 미성년자 명의 주식 계좌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3만4590개로, 1년 만에 약 세 배 증가했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20대 미만 미성년자가 34만3694명에 달하고,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평

가액도 2조원(1조926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앵그리·스마트 머니, 韓 증시로

‘열 받은 돈(앵그리 머니)’의 은행 탈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요구불예금잔액은 677조602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말 대비 약 22조3000억원 급감한 규모다. 앞서 3월 말일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699조9081억원으로, 한 달 사이 약 15조원 증가하며 대기성 자금이 은행권으로 유입되는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4월 들어 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면서 자금 흐름이 다시 뒤집힌 것으로 풀이된다. 요구불예금은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시장금리부 예금(MMDA) 등 이자를 거의 주지 않는 대신 언제든지 입·출금할 수 있는 자금이다.

은행 요구불예금 전월 말비 22조 ↓ 투자자예탁금 112조8070억 달해 마이너스통장 40조, 빚투 33조 규모 위험한 과열·버블 상태 경고 잇따라 버핏지수 207.05%... 고평가 상태

증시 주변을 맴도는 돈도 112조8070억원(투자자예탁금)에 달한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팔고서 찾지 않은 돈이다. 주식 투자 열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통한다. 고수익의 단기 차익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장세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해 투자하는 ‘스마트 머니’ 성격을 가진다. ‘1차 동학개미운동’이 한창이었던 2021년 8월에는 월평균 투자자예탁금이 69조원에 달하기도 했다.

급등락장에 빛을 내서 주식 투자에 나선 이른바 ‘강심장 빚투족’도 등장했다. 5대 은행의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0조원을 넘나들고 있다. 증권가 빚투 규모는 9월 기준 32조7200억원으로 불어났다.

스마트 머니도 증시를 향한다. 최근

도입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확인된다. RIA는 해외 주식을 매도해 원화로 환전한 뒤 국내 주식 및 펀드 등에 재투자하고 일정 기간 유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계좌다. 매도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1분기 매도시 100% 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5000만원 규모 해외주식을 매도해 2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약 385만원의 세금이 공제되는 식이다.

증권사별로도 관련 수요 증가가 확인된다. 삼성증권은 RIA는 출시 2주 만에 잔고 1000억원, 계좌 수 1만개를 돌파했다. 한국투자증권은 3만5000좌 이상을 유지해 약 30%를 점유했고,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도 투자지원금, 매매 수수료 우대,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내세워 각각 1만좌를 돌파했다. 이들은 특히 현금 리워드, 투자지원금, 매매 수수료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내세워 빠른 속도로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중개형 ISA가 가입자 1만명 달성까지 한 달 이상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RIA는 단기간에 빠르게 수요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험한 과열 상태”라는 경고가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판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는 지난 10일 49.58을 기록 중이다. 시장 출렁임이 심하고 전망이 어두울 때 지수가 오르는데, 50 이상이면 ‘극단적 공포’ 구간으로 해석된다. 미국계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한국 증시를 “전형적 버블 사례”라고 직격했다.

이런 평가는 수치로 증명된다. 금융정보 사이트 인덱스고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 대비 국내총생산(GDP) 비율인 ‘버핏지수’는 10일 현재 207.05%다. 통상 120% 이상이면 과열로 판단하는데, 이를 크게 웃돈다. 한 나라의 경제 규모(GDP)보다 증시의 덩치가 2배 이상 커졌다는 건데, “매우 고평가된 상태”라는 진단이다.

/허정윤·신하은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삼성전자, 글로벌 스마트폰 1위... 프리미엄 중심 전략 속도

글로벌 점유율 22%... 애플은 20% 갤럭시S26 사전예약 실적 등 성과 엑시노스 2700 성능 개선 초점 기능별 특화 AI 에이전트 병렬 배치

삼성전자가 플래그십 스마트폰 수요 확대를 발판으로 프리미엄 중심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갤럭시 S26 시리즈 흥행을 계기로 폴더블·차세대 칩·AI 에이전트까지 포트폴리오 전반의 변화가 감지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 옴디아는 최근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22%를 기록하며 20%에 그친 애플을 따돌렸다고 발표했다. 옴디아는 삼성전자는 중급 모델의 출시 주기 차질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플래그십 제품 수요와 갤럭시S26 시리즈 강력한 사전 예약 실적에 힘입어 점유율 확대를 이뤄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갤럭시S26 시리즈의 사전 예약 판매량은 전작인 S25 시리즈와 비교해 전 세계적으로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꼽힌다.

플래그십 중심 수요 확대는 단순히 S 시리즈에 그치지 않고 제품 포트폴리오 전반의 전략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메모리 부품난으로 원가 압박에 내몰림에도 삼성전자는 올해도 스마트폰 전략을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갤럭시Z폴드7 흥행으로 확보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차세대 모델인 Z폴드8·Z플립8은 물론 ‘와이드 폴드’로 불리는 신규 폼팩터 출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폴더블 시장을 선도해 온 기술 경험을 토대로 프리미엄 시장 내 입지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7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엑

시노스 2700이 성능 개선에 초점을 맞춰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해당 칩의 초기 버전이 벤치마크 사이트 각벤치 데이터베이스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지며 싱글코어 2603점 멀티코어 1만350점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드웨어 경쟁을 넘어 인공지능(AI) 에이전트로 경쟁 축을 맞추는 모습도 나타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6을 ‘AI 에이전트 스마트폰’으로 규정하고 복수의 AI를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을 전면 내세웠다. 기존 단일 AI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기능별로 특화된 AI를 병렬로 배치하고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갤럭시S26 시리즈의 판매 호조를 반영해 이달 생산량 확대에 나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회사는 지난 3월 중순 제시했던 이달 S26



서울 강남구 삼성 강남에 진열된 갤럭시 S26 시리즈. /뉴시스

시리즈 생산계획은 총 240만대 규모였지만 이후 일반형과 울트라 중심으로 물량이 늘어나며 현재는 약 60만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양강 구도가 심화되는 모습이 관측된다. 양사 합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분기 기준 42%로 확대된 반면 샤오미·오포·비보 등 가성비를 앞세운 제조사들의 점유율은 하락세를 띠며 수익성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분실공고

분실내용: 분양 계약서 추가선택품목 시스템 에어컨 공급 계약서

도봉구 도봉동 95-3번지, 외 157 필지 102동 1002호 도봉 금호아울림

공고인: 최해정, 최신혜 ☎ 02-303-5742

2026년 4월 13일